



2025년 중국조선족회갑잔치, 전통의 아름다움 세상에 널리 자랑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전승 발양



6월 21일 오전, 하지(夏至) 절기를 맞이하여 록음방초 우거진 연길시 중국조선족민속원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떼지어 모여들면서 가는 곳마다 제법 흥성흥성했다. 이날 흥겨운 노래가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12명의 로인들을 높이 모신 중국조선족회갑잔치 민속행사가 이곳에서 성황리에 펼쳐지면서 연변지역의 존로애로(尊老爱老)의 아름다운 민족 전통을 세상에 널리 자랑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길림성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본회장 도시 행사의 일환으로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과 연길시정부에서 주최하고 연변문화예술연구중심과 연길시부녀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 연길시민족종교사무국, 연길시민족국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족은 예로부터 로인을 존중하는 것을 생활 속의 중요한 레의법칙으로 간주해오면서 로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축수 행사를 마련하는 효도풍속 습관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중 회갑잔치가 가장 전형적인 축수의식이다. 회갑잔치는 조선족 전통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례중의 하나로서 60

세를 맞은 로인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민속 전통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8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종목으로 등재된 중국조선족회갑잔치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면서 그 의미를 더욱 빛내였다.

행사는 흥겨운 조선족 전통음악인 <라질가>의 통소 연주와 함께 시작되었다. 12명의 로인들은 아들딸, 손자손녀들의 응위하에 회갑상에 오르면서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서 12명 어린이들이 12명 로인들에게 생화를 안겨주었다. 회갑상은 전통에 따라 과일, 당과류, 떡, 고기불이 그리고 대추를 물린 툇닭 등으로 풍성하게 차려졌는데 로인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로인들에 대한 효심을 표달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날 회갑상을 받은 로인들로는 장아림과 손계림 부부, 방봉석과 안순복 부부, 박철원과 김봉선 부부, 박선귀와 리해숙 부부, 교봉국과 장지란 부부, 최인성과 김선희 부부 등 12명의 여러 민족 로부부들이었다. 이들은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와 지역 발전에 기여해온 분들이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로인들의 로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다.

행사에서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 부국장 김현청과 연길시정부 부시장 김은희가 로인들에게 축수 대련을 드리고 장수주를 올렸다. 또한 가족 대표의 감사 인사와 함께 자녀들과 손자손녀, 행사 주최측 사업일꾼들이 로인들에게 술을 따르고 큰절을 올리는 전통 헌수 의식이 진행되어 훈훈하고 감동적인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회갑잔치의 하이라이트는 전통 공연이었다. 연길시공원소학교 어린이들의 중창 <제비가 돌아왔네>로 시작된 축하공연은 남녀 4인창 <오래 오래 앉으세요>의 흥겨운 노래 속에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로인들의 건강장수를 축원하는 흥겹고 의미있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행사에 참가한 모든 로인들과 가족, 관계자들이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

이번 회갑잔치는 단순한 회갑잔치를 넘어 조선족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효사상을 현대사회에 전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어린이들이 로인들에게 생화를 올리고 절을 하는 모습에서 전통의 계승과 존로애로의 정신이 빛났다.

연길시외봉반 반장이며 이번 회갑잔치의 초대 인물로 회갑상에 오른 박철원과 김봉선 로부부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족회갑잔치의 회갑상을 받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당과 정부 그리고 자녀들의 진심으로 되는 축복을 받아 매우 기쁘다. 로년에 작은 힘일지라도 기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회갑잔치는 로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전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축제의 장이기도 했다. 산동성 청도시에서 온 한 관광객은 "오늘 우연히 중국조선족민속원에 관광했다가 중국조선족 회갑잔치 전 과정을 지켜보는 소중한 체험을 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로인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조선족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피부로 직접 느껴보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연변지역의 '중화민족 한가정'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 주최측은 "중국조선족회갑잔치 민속행사를 통해 조선족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로인들을 공경하는 우량한 전통을 발양하며 조선족회갑잔치 민속 활동을 담체로 여러 민족 로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민속행사를 통해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진일보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승, 발양하려는 데 이번 행사의 취지를 두었다."고 밝혔다.

/ 안상근 김파 기자



훈춘 -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 훈춘 구간 대상 정식 착공



6월 21일, 훈춘 -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 훈춘 구간 대상이 정식으로 착공되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 며 연변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착공식에 참석해 착공을 선포했다.

훈춘 -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 훈춘 구간 대상은 총투자자 96억 2,000만원, 총길이가 67.48킬로미터, 설계속도가 100킬로미터 / 시로 건설된 후 훈춘시와 방천, 권하통상구 사이의 효율적인 연결을 실현하게 된다.

호가복은 이날 착공식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훈춘 -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 훈춘 구간 건설대상은 길림성 당위와 정부의 사업협조를 청취할 때의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하는 중대한 조치이며 변경지역의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지역 교통 조건을 개선하는 중대한 공사로서 대외개방우세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연변개방 신고지를 서둘러 건설하는 데 중대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

각 건설 참가단위는 효율 의식을 강화하고 공사를 과학적으로 배치하며 시공 역량을 강화하고 공사 기간을 카운트다운으로 배정하여 추진함

으로써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 개통되고 될수록 빨리 효용을 발휘하도록 힘써야 한다. '생명지상, 안전제일' 리념을 확고히 세우고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엄격하고 실속있게 틀어쥐며 때 시공 작업 과정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책임을 충충이 단단히 지고 조치를 순환적으로 착지하여 안전생산을 대상건설의 전반 과정에 확실하게 일관시켜야 한다. 주변의 생태보호를 중시하고 제반 환경보호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여 대상건설이 주변 환경과 서로 잘 어울리도록 추진함으로써 고속도로가 변강의 록수 청산을 수호하는 '생태장막'으로 되게 해야 한다. 훈춘시와 주 직속 관련 부문은 서비스 보장을 잘하고 대상 시공 수요를 적극적으로 연결하며 고용, 에너지 사용 등 요소 공급을 강화하고 대상건설중의 난점을 적시적으로 조화롭게 해결하여 대상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건설되도록 보장하고 힘을 합쳐 대상을 품질이 견고한 '정품대로', 대중에 복을 주는 원활한 '행복의 길', 흥분부인의 '발전동맥'으로 만들어야 한다.

/ 연변일보

길림성 동남부 최대 철도 중점 교통중추

통화역 건설 완공



국가 '14.5'계획 중점 고속철도 건설대상인 심가(沈佳) 고속철 심백구간 선로에서 가장 큰 기차역 대상인 통화역 건설이 최근 완성되었다.

길림성 동남부지역에서 가장 큰 철도 중점 교통중추인 통화역은 총 건축면적이 약 3만평방미터로 고속철, 일반열차, 대중교통의 '제로환

승'(零换乘) 체제교통 체계를 구축했다.

통화역은 동시에 1,500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교통 시 시간당 발송량은 790명에 달한다. 통화역은 6월말에 일반열차가 개통되고 하반기에 고속열차가 개통될 예정이다.

/ 길림일보

홍기 브랜드 가치, 승용차 브랜드 업계 1위



6월 18일, 제 22회 '세계브랜드대회'가 북경에서 개최된 가운데 세계브랜드실험실이 발표한 2025년 <중국 500 가장 가치있는 브랜드> 분석보고가 정식으로 출범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제 1자동차 홍기(红旗) 브랜드의 2025년 브랜드 가치는 1,410억 6,500만원으로 승용차 브랜드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최근 몇년 동안 홍기 브랜드는 판매량 규모, 기술 자체 연구, 제품 매트릭스(矩阵), 사용자 운영 및 글로벌 배지 등 방면의 체계화 돌파로 브랜드 가치 도약의 핵심 원동력을 구축했다.

판매량 규모에서 2024년 홍기 브랜드 판매량은 41만 1,7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해 7년 연속 판매량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신에너지 제품의 판매량은 11만 5,000

대로 성장 속도가 44%에 달해 업종의 8.5% 포인트보다 높았다. 홍기 H5, HS5는 각각 중국 브랜드 B급 리무진, 중국 브랜드 B급 리무진 SUV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금규화(金葵花) 브랜드는 모두 1,100대를 판매했다.

기술 연구개발 면에서 최근 2년 동안 홍기 브랜드는 관건적인 핵심기술 1,000여개를 돌파했다. 66Ah 전고체셀(全固态电池) 시험 제작 및 검증을 완료하여 주요 지표가 국제적으로 앞섰다.

중국 최초의 차급급, 5나노 5억 융합 칩 '홍기 1호'를 출시했으며 완전한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가진 전주동(全主动) 지능새시(智能底盘)를 연구개발하였다.

브랜드 운영 면에서 홍기는 빠른 리듬, 중국-아프리카 협력 정상회의,

하게 다보스포럼, 장춘마라톤 등 중대한 활동을 둘러싸고 새로운 것을 추진하여 '높은 빛의 순간에 홍기가 있다'는 브랜드 정신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상해모터쇼, 향향자동차박람회 등 중대한 업계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혁신, 제품혁신 성과를 과시하고 브랜드 매력과 활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알아본 데 따르면 향후 5년간 홍기 브랜드는 1,200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여 900개가 넘는 관건 핵심 기술을 공략하게 된다. 제품 투입을 가속화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 차, 금규화 초초화 모델을 포함한 20여개의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며 글로벌 배치를 가속화하여 년간 20만대 이상의 해외 생산능력 규모를 형성하게 된다.

/ 길림일보

7월 1일부터 장백산 - 북경 고속철도 새로 추가, 약 6시간 소요

7월 1일 0시부터 철도부문은 3분기 렬차운행도를 시행하는데 장백산에서 북경으로 가는 렬차열차가 새로 추가된다. 이번에 증편된 G945/8, G943/2 열차는 부흥호 기술향상형 지능고속열차로 전체 운행시간은 약 6시간이고 길림, 장춘, 심양북역 등을 경유한다.

장백산은 국가 5A급 관광지로서 독특한 원시림 경관과 아름다운 자

연풍경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북경 방향 렬차 운행은 장백산 관광에 대한 경진지지역 관광객들의 열정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장백산지역의 호텔, 료식업, 인산 등 특색농산물의 판매를 크게 증가시켜 변강 경제 진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 연변조간신문